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 | | | | | |
|--|---|--|-----|--|---------|-----|
| 출 장 자 | 소 속 | 동향분석팀 | 직 위 | 연구원 | 성 명 | 정혜선 |
| 출장기간 | 당 초 | 2008. 7. 10-17 | 출장지 | 당 초 | 스페인, 독일 | |
| | 변 경 | " | | 변 경 | " | |
| 출장목적 | (1) 제3섹터연구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제8회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2) ODA의 성 주류화 관련 독일 전문가 인터뷰 | | | | | |
| 경비부담 | 항공 및 기차: 2,706,200 체제비 및 준비금: 2,028,000 등록비: 784,999 | | | | | |
| 주최기관 | 제3섹터연구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 | | | | |
| 방문기관 | | 면담자 | | 면담내용 | | |
| Centro de Investigacion de Economia y Sociedad, Universitat de Barcelona | | Patrick Murphy, DePaul University Pau Vidal, Observatorio del Tercer Sector Masayuki Deguchi,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Shahnaj Parveen, Bangladesh Agricultural University | | 여성과 개발, 시민사회의 참여, 사회적 기업 등 | | |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Angela Langenkamp, Senior Policy Advisor on Gender,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Sabine Lindemann, Division 214-Gender equality, human rights, culture and development Ronald Meyer, Deputy Division Head, Division 320-Africa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 BMZ 젠더 정책 및 젠더 마커 활용 체계, 대 아프리카 연합 사업 주요 내용 | |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8. 7. 30.

출 장 복 명 자 : 정혜선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제3섹터연구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제8회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독일 개발원조 전문가 인터뷰

2008. 7. 10-17, 스페인 및 독일

보고자 : 동향분석팀 정혜선 연구원

1. 출장 목적

- (1) 제3섹터연구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 제8회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 (2) ODA의 성 주류화 관련 독일 전문가 인터뷰

2. 참가자: 동향분석팀 정혜선 연구원

3. 일시 및 장소: 2008. 7. 10-17, 스페인 및 독일

| 날짜 | 출장일정 |
|---------------|---|
| 7/10(목) | 출국-스페인 도착 |
| 7/11(금)-12(토) | ISTR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ssion G8--Accountability: Models and Methods 참석• Session I7--Empowerment of Women in a Globalized World 참석• Session J6--Progress and Setbacks in Gender Equality 참석• Session K3--Old Issues in the New Age of Globaliz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and its Reality from Gender Perspectives" 논문 발표• Session L8--Globalization and Citizen Engagement: New Practices, Meanings and Expressions of Citizenship 참석• Plenary Session--Theorizing the Global Third Sector: Does North/South Make Sense? 참석 |
| 7/13(일) | 스페인 출발-독일 도착 |
| 7/14(월)-15(화) | 전문가 인터뷰 Angela Langenkamp, Senior Policy Adviser on Gender,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Sabine Lindemann, Division 214-Gender equality, human rights, culture and development,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onald Meyer, Deputy Division Head, Division 320-Africa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7/16(수)-17(목) | 독일 출국-서울 귀국 |

4. 주요 내용

(1) 제8회 ISTR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제3섹터연구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Sector Research)는 인도주의, 시민사회 및 비영리 분야 발전을 지향하는 연구 및 교육 협회이다. 1992년에 설립되어 제3섹터 분야의 정책 및 이론 연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8회를 맞는 금번 ISTR 국제학술회의는 "The Third Sector and Sustainable Social Change: New Frontiers for Research"를 주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Universitat de Barcelona)에서 2008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다. 금번 회의는 EMES(European Research Network)와의 공동 주최로 최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별 세션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진은 우리 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ODA의 성 주류화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and Its Reality from Gender Perspectives"라는 원고 발표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linguapolitics와 개발, 9월 Accra 회의와 성 주류화의 발전, 다학제적 연구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는 ISTR Affinity Group on Gender라는 젠더연구네트워크가 새롭게 구성되어 ISTR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동 네트워크는 향후 학술회의에 앞서 젠더 패넬을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펼 예정이며, 일본 Keio University의 Sachiko Nakagawa가 사무국으로 역할하고 있다.

(2) 독일 개발원조 전문가 인터뷰

독일은 여성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토지, 자본, 일자리 등 경제적 기반과 자원을 여성들이 불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저지한다고 인식한다. 빈곤 철폐와 인간개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개발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이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세력화와 성평등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발원조는 사회문화적으로 고착화된 성 차별적 제도와 관습에 대해 당위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논리이다.

독일은 성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성평등 원칙도 마찬가지로 존중한다. 이에 따라 독일은 개발원조, 특히 양자간 개발원조에서도 2001년부터 성평등 정책을 공표,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개발원조를 전담하는 기구는 경제협력개발부(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인데, BMZ가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중장기적 개발원조 전

락을 설립하고, 이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BMZ의 전략은 개발협력처(GTZ: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개발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Entwicklungsbank), 개발지원처(DED: Deutscher Entwicklungsdienst), 인적자원개발처(InWEnt: 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등에서 나누어 수행한다. 이중 GTZ은 기술 협력, InWEnt는 역량강화, DED는 전문가 파견을 담당하며, KfW는 재정 지원을 통한 원조를 수행한다.

BMZ는 OECD/DAC의 3가지 정책 마커(성평등, 환경, 협치)를 활용하며, 이같은 BMZ의 정책에 따라 모든 개발원조 집행기관은 프로그램 혹은 사업 개발에 있어 젠더 마커를 부여해야 한다. BMZ와 GTZ의 성평등 전담부서는 긴밀하게 협조하며 젠더 마커 보완과 활용 현황 점검 및 결과 평가를 담당한다.

DAC의 젠더 마커와 BMZ의 젠더 마커는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DAC에서 부여하는 "0"은 "not targeted to gender equality"를 의미하는 반면, 독일의 원조에서 G-0는 "have no potential to promote gender equality"이다. 즉, 개발원조는 성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성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성평등을 주요한(principal) 혹은 중요한(significant) 사업 목표(objective)로 채택해야 한다.

신규 사업 개발은 BMZ에서 사업 개요(project outline)를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때 성 인지적 성과 지표를 포함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서가 개발되면 이는 심의를 거쳐 착수가 가능해진다. 모든 사업의 제안서(proposal)은 성 분석을 통해 개발되어, 젠더 마커를 부여받는다. 이 중 젠더 마커 G-0를 받은 사업들은 BMZ의 Division 214(Gender equality, human rights, culture and development)의 별도 심사를 받게 되며, 충분한 근거 없이 G-0를 부여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BMZ는 계획안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젠더 마커는 사업(project) 단위 뿐만 아니라 program component 단위에서도 적용됨. 원조가 점차 program화되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독일의 원조는 점차 프로그램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원국에 주재한 해외사무소는 국별 발전전략(country strategy), (sector strategy) (sector-wide program) (program component), 새로운 개발원조 형식 하에서 Division 214는 (sector strategy)를 승인하는 권한, 성 주류화에 힘이 실어져 지난 7월 결정됨 이에 따라 program-wise gender analysis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점차 budget support, multi-donor project/program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젠더 마커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어야 젠더 마커 부여가 가능하다. BMZ가 집행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성 주류화를 담보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과 관리가 불가능한 사업에 젠더 마커를 부여할 수 없다. 간혹 BMZ 등 독일 측 담당자가 사업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통해 젠더 마커 부여와 성과 관리를 담보할 수 있

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담보할 제도나 과정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젠더 마커 coverage가 100%가 아닌 이유이다. 또한 CRS는 sector-allocable aid만 집계하므로 multi-donor trustfund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 담당자는 성과 지표를 근거로 성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는 것은 BMZ의 각 지역 담당국이다. 성 인지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Division 214로 refer될 수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매년 국제적인 전문 감사기관을 통해 외부 감사를 통해 질 평가를 받는데, 원조 사업의 질 평가를 수행한다.

GTZ에서는 수자원, 식량, 교육 등 주제별로 전문적으로 사업 제안서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젠더 마커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또한 GTZ 전 직원과 수원국 대사관에 배치되어 있는 협력 인력이 활용하는 extranet에서는 각 주제 분야의 사업 개발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문헌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때 ADB, World Bank 등에서 발간한 성 인지적 도구를 찾아보기 쉬운 화면으로 제공한다.

5. 관찰 및 결론

- 1) ISTR은 연구자와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만나는 교집합으로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 향후 ISTR을 통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국제학계에서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 2) 개발원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되면서도 가장 자주 등한시되는 주제가 바로 젠더이다. 독일은 별도의 부처와 기능별 산하기구가 긴밀히 협조하여 성 주류화를 꾀하는 긍정적인 사례였으며, 특히 DAC의 젠더 마커를 자체적으로 재정의하여 활용하는 점이 높이 살만 했다. 금번 출장에서는 전문가 인터뷰에서 그치지 않고 젠더 마커 활용방안에 대한 BMZ의 연구결과를 한국어로 재생산하기 위해 BMZ의 저작권 문제도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6. 수집자료 목록

- 1) GTZ and Gender Information Package
- 2) Women's Rights in the Arab World: Overview of the status of women in family law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fluence of Islamic factors
- 3) Strengthen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Development Cooperation
- 4) 8th ISTR International Conference Program and participants list
- 5) 8th ISTR International Conference Abstracts CD-rom
- 6) Observatorio del Tercer Sector Publicacions CD-rom

- 7) Anahit Mkrtchyan, "Effectiveness of the Sectoral Partnership in Reducing Gender Discrimination in Economy and Workplace in Post Soviet Transition"
- 8) Shahnaj Parveen, "Analysing the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in farm households: Lessons from Rural Bangladesh"
- 9) Pau Vidal and Sara Martinez, "An Approach to Codevelopment"
- 10) Masayuki Deguchi, "Fundamental reforms on Nonprofit Organizations in Japan as an Example from the International Point of Linguapolitics"
- 11) Yimei Chen, "The Space for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 China"

7. 관련인사목록

Angela Langenkamp, Senior Policy Advisor on Gender,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49 228 99 535 3623, angela.langenkamp@bmz.bund.de

Sabine Lindemann, Division 214-Gender equality, human rights, culture and development,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49 228 99 535 3718, sabine.lindemann@bmz.bund.de

Ronald Meyer, Deputy Division Head, Division 320-Africa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49 228 99 535 3598, ronald.meyer@bmz.bund.de

Anahit Mkrtchyan, Independent researcher, +374 10 34 42 79, anahitrubeni@yahoo.com

Patrick Murphy, DePaul University, +1 312 362 5608, jpmurphy@depaul.edu

Pau Vidal, Observatorio del Tercer Sector, +34 93 2177297, pau.vidal@tercersector.org.es

Masayuki Deguchi,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81 6 6878 8544, deguchi@soken.ac.jp

Shih-Jung Hsu,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886 2 2938 7649, srshiu@nccu.edu.tw

Shahnaj Parveen, Bangladesh Agricultural University, +880 91 55810, shahnaj1969@yahoo.com

Dawoon Chung, University of Bradford, +44 1274 236625, d.d.chung@bradford.ac.uk